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예배 시간 10분 일찍, 기도와 찬양으로
- ◎ **대림절 2:** 오고 계시는 구주를 예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 **성탄예배:**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부서별, 선교회별로 성탄 축하준비를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 25일 오후 5시 (본당) 성탄축하 잔치: 오후 6시 (본당)
식사교제: 오후 7시 (홀)
- ◎ **수련회:** 전 교인 수련회가 임박했습니다. 서로서로 권면하셔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일시: 2013.12.31(화) ~ 2014.1.2(목) 회비: 10불(1인)
장소: Hunua Falls 크리스천 캠프 주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시편 113:1)
공동체장들은 인연 과악을 하여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정인 집사).
- ◎ **기도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는 12월 16일(월)~20일(금)까지 실시됩니다. 한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특송하실 성도나 기관 신청받습니다)
시간: 오전 5시 30분, 장소: Chapel room 주제: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
기도담당: 박일영 장로(16일) 최득수 집사(17일) 박제용 장로(18일) 정진택 집사(19일) 정덕수 장로(20일)
- ◎ **나눔방:** 생명의 삶 교재로 QT 나눔을 같이 할 성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달력:** 2014년 달력 받지 못한 성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감사:** 점심으로 섬겨주신 각 선교회 회장단들 감사드립니다.
- ◎ **혈조:** 탈북 장애인 돕기 자선공연이 있습니다.
입장료: \$10 문의: 이광희, 현석호 장로

12월 새벽 기도회 본문

6일: 고후 3:12~18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13일: 고후 7:2~7 관계 회복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20일: 시편 23:5~6 영원히 살리라 27일: 고후 12:11~21 사랑하면 아픔을 감내합니다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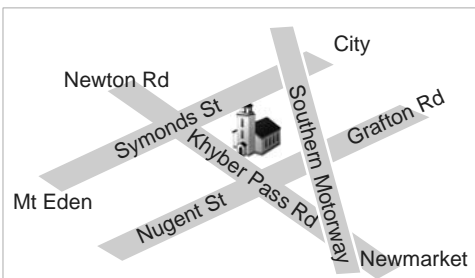
필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3년 12월 8일

15권 49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평안하시죠?” “예” -이태한 목사

목사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대동소이 하지만 굳이 차별을 두자면 심방입니다. 한국상황에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심방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뉴질랜드는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심방은 거의 무차별(저의 표현)입니다. 예고 없이 무조건 방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면 싫어하시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상황에서 심방은 그렇지 않다는 데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성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큰 실례인 동시에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맞춤형 방문(저의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몇 시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좋을지 확인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종종 전화로 심방합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드리는 날 외에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소일하고 계시는 성도님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평안하시죠?”, “예”, 그리고는 다른 몇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불과 3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제게 전화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흔히 하는 가벼운 인사치레의 말씀이 아닌 마음 깊숙이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당연할지대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 감사를 연발하실까? 오히려 제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제게는 감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도 못하면서 수화기 너머의 말씀이지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여쭙은 목사의 전화지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계심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대림절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로 진심 어린 용기와 덕담을 나누어보시면 어떨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방을 원했을 때 여관 주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배려했더라면 그는 천사들보다, 목자들보다 먼저 성탄 하신 아기 예수를 뵈는 감격이 있었을 텐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약간만 배려하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소망과 삶의 의욕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이사야 55:1~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9장	다함께
※ 성서교독	116. 구주강림 2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79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규임권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0:13~24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고별 설교	이태한목사
찬송	43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준섭 형제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이순옥 집사
성경 / 룻기 4:13~22
설교 / 해피엔딩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53장
주기도 / 다함께

금주의 기도제목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성전 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탄 준비와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지혜롭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새해를 맞는 성도들이 되도록.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대립절기가 되도록.

2013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학생 혹은 청년 시절 수련회에서 참여했던 천로역정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우리 신앙 역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래된 시절이라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몇 주간에 걸쳐 천로역정 책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청교도 문학을 대표하는 존 번연(1628~1688)의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 은 작가가 꿈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원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으로 “이 세상에서 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의 여정” 이라는 의미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지명 등은 모두 신앙과 관련된 덕목이나 악덕, 유혹과 위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한 예로 주인공은 크리스천(기독교)이며 그의 멘토는 ‘전도자’ 로 크리스천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극복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기술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거리

세상의 황폐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몸을 떨고 울고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 전도자가 찾아와 "크리스천,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이 책을 읽어보니,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하나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광채가 빛나고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으로 가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앞만 향하여 정신없이 뛰었다. 그 가운데 고집쟁이(Obstinate)와 온순(Pliable)이 급히 따라왔다. 고집쟁이는 이 세상 향락들을 다 버리고 찾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가리키며 결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집쟁이는 크리스천을 따라온 것을 후회하며 온순에게 되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온순은 고집쟁이의 권유를 물리쳤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온순씨가 오순도순 함께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온순이 물었다.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모두 기록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그분은 조건 없이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등에 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다음 주에 계속)

◎ 12월 교회알지

한 주간 기도회:
12월 16일(월)~20일(금)
성탄주일:
12월 22일(주일)
성탄 축하예배:
12월 25일(수) 오후 5시
송년주일:
12월 29일(주일)
전교인 수련회:
12월 31일(화)~1월 2일(목)

◎ 12월 예배봉사가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은희 집사
다음 주일: 임병숙 권사
다음 주일 청년부: 박제용 장로
12월 18일 수요일: 김철재 집사
12월 18일 애찬: 박제용 장로
12월 22일 주일: 임혜자 권사
12월 22일 청년부: 정진택 집사